전북 소비심리 급격히 위축

지수 98로 전월보다 2p 하락… 8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

전북지역 소비심리가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2월 소비심리는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까지 하락하며 8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2016년 2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지수 결과'에 따르면 2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지난달(100)보다 2p 하락한 98을 나타냈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지난해 6월(98)과 같은 수준으로 8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으로, 100 이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심리는 지난해 6월 메르스의 여파로 98까지 떨어졌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개선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한풀 꺾인 소비심리는 석달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연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된데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로는 현재생활형편(91→90), 생활형편전망(95→96), 가계수입전망(99→98) CSI는 지난 달과 비슷한 가운데 소비지출전망(106→104), 현재경기판단(68→64) 및 향후경기전망(77→74) CSI는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또한 취업기회전망(76→76), 가계저축전망(94→94) CSI는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금리수준전망(113→94)이 큰 폭 하락했고 가계부채전망(96→94) 및 임금수준전망CSI(117→112) CSI도 전월대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96→98) CSI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해 임금수준전망 CSI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로 조사대상으로는 도내 6개 시지역(읍·면 인접지역 포함) 400가구(380가구 응답)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조사됐다. /정영수 기자

'가계 빚 증가세 둔화' 기대하는 정부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자리잡으면 상승세 완화될 것
우려의 시각, 소득이 부채 증가 못 따라잡아… 정부대책 한계

1200조원을 넘어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가계빚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거래 호조와 저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규대출의 상당부분이 실제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소득심사 강화와 원리금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자리잡으면 부채 총량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를 둘러싼 우려의 시각이 많다. 가계소득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지 오래됐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쓰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이 생길 경우 빚 상환이 어려운 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5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이 3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증가액(16조1000억원)에 비해 10조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기타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계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가계소득의 증가세는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0.7%로 2009년 3분기(-0.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에 달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계에서 쓸 돈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급증세를 줄여 나가려면 가계소득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되기까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가계의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구조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아예 정부의 직접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해 가계대출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집단대출에 한해서는 은행 스스로 입지·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점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따라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 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전히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부동산 경기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분양시장의 경우 대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경진원, 해외시장개척 18억 지원

15개 사업 670개 기업 목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진원은 올해 예산만 17억900만원을 확보했다.

경진원은 개별박람회참가, 마이오피스,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온라인 상거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 67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정했다.

먼저 오는 3월말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지원을 시작으로 4월초 남미(칠레, 페루)에서 진행 예정인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시장개척 지원사업체 참여를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진흥원의 홈페이지(www.jbba.kr)를 참조해 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jbtrade.jeonbuk.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진원 해외시장팀(063-711-2041)으로 하면 된다.

홍용웅 원장은 "2016년도에는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타깃시장별, 품목군별,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시책 발굴 지원은 물론 FTA활용 통상·통관 밀착 컨설팅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지난해 1,876만달러 수출지원성과를 나타냈다. /신광영 기자

봄 신학기 용품전 25일 서울 다이소 도곡점에서 모델들이 신학기 학용품 및 문구류를 선보이고 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봄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및 필수 준비물, 교과 준비물 및 보온용품 등 약 4500여종을 판매하는 '봄 신학기 용품전'을 전국 1,050여 개 다이소 매장에서 진행한다.

'사랑 한가득 주먹밥' 나눔행사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김제제일교회서 200여명 초청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25일 김제시 옥산동에 소재한 김제제일교회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제5회 사랑한가득 주먹밥'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북은행 임직원이 급여 1%를 기부해 마련한 성금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섭 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과일을 준비하며 봉사활동을 펼쳤고, 식사 후 기념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노인섭 부행장은 "평소에 드시던 음식과는 색다르게 마련한 주먹밥을 통해 전북은행 직원들의 사랑이 어르신들께 전해졌길 바라며, 올 한해도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도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 급여 1% 기금으로 '사랑한가득 주먹밥', 'JB멘토링 문화체험', '희망키트 행사' 등에 전직원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연중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영수 기자

사업주 훈련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장님 올해는 제발 사업주 훈련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도내 기업에서 사업주 훈련 실시 이후 찾아가지 않은 훈련지원금 23억원에 대한 대대적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훈련 지원금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등 이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3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하게된다.

현재 도내 사업장에서 찾아 가지 않은 훈련지원금은 모두 23억원에 이른다.

사업주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방문해 사업장관리번호만으로도 훈련비 미신청금과 미신청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캐시백 대박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타행에서 전북은행으로 계좌이동(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변경을 완료한 고객과 JB퍼스트주거래통장에 자동이체를 신규 등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5월말까지 '캐시백 대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으로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캐시백 100만원(2명), 캐시백 50만원(4명), SPC 모바일상품권(200명)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6월말에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기자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퇴임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25일 임기를 마쳤다.

홍 사장은 제7대 사장으로 지난 2012년 11월29일부터 3년 3개월동안 근무했다.

홍 사장은 7년 연속 100억원대 경영흑자와 6년연속 경영평가 우수등급에 힘썼다.

홍 사장은 "앞으로도 필부필녀의 입장으로, 또 전임사장의 입장으로서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겠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제8대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고재찬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을 임명했다. /신광영 기자